

“정인이 밟혔다” 전문가들 일치된 견해…법정서 통했다

1심 재판부,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선고 입증 어렵다던 살인 혐의…유죄로 인정돼 법의학자·부검의 증언, 정황 증거 큰 역할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이런 판결이 나온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증인도 없고 피해자도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한 것인데, 이같은 판단에는 법의학자와 부검의 등 전문가들의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지난 1월13일 첫 공판 기일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증인도 없고 피해자도

사망한데다, 살인의 ‘고의성’도 입증해야 해 살인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검찰은 공판 과정 내내 법의학자와 부검의 등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살인 고의성 부각에 주력했다. 공판에는 정인이를 부검했던 19년 경력의 부검의 A씨와 유창호 서울대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이정빈 가천대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 등이 차례로 증언서에 앉았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의 복부 손상에 대해 “(관련 논문에는) 집에서 이런 치명적 복부손상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인이처럼 채장이 절단되고 장간막도 몇 군데 찢어질 정도의 손상은 더욱 생기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정면으로 척추를 보는 방

향에서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정인리와 같은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부에 2회 이상 강한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또 유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발로 밟는 경우가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고, “정인이는 너무 많이 다쳤다. 내동댕이칠 때 흔히 생기는 멍이 있다”며 “조금 더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학 적 소견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섰던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 이 파열되지 않고 채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증언은 실제 재판부 선고에서도 언급됐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우 대장이나 소장 이 파열되지 않은 채 채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당일 피해자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장간막 파열은 주먹으로 가격하는 경우 발생한다”거나, 발로 밟는 경우 발생한다고 한다거나 ‘채장 손상이 있는 경우 고의적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 등 전문가들이 증언서에서 설명한 내용들도 살인죄 적용의 근거로 인용됐다.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실시된 실험 결과를 살인죄 적용의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다. 장씨 측이 정인이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를 안고 흔들다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렸다는 주장에 대해 실험으로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인이) 사망 당시와 유사한 크기인 86cm, 9.05kg의 인형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높이 정도인 150cm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재연한 결과 5회 모두 다리 부위가 먼저 닿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장씨 아래층에 살던 주민이 정인이 사망 당일 들었던 4-5회 정도의 큰 소리와 진동도, 살인죄 적용의 정황 증거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아래층 주민이 피고인이 방문한 (지난해 10월13일) 오전 9시 45분 피해자의 장간막이 파열돼 출혈이 발생했다면 10시38분에는 저혈량 쇼크로 의식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는 식이었다.

기동취재본부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 행진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흥기로 찢려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경기 분당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흥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손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

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흥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찢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근처 가로수에 충돌한 뒤 멈춰 섰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려고 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 의해

도주를 제지 당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이후 A씨는 시민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이슬기자

순천만갯벌 해상데크길 설치 철회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행의정모니터 연대'

해상데크길 공사구간, 해양보호생물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 서식 확인

순천만갯벌 해상데크길 설치 철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주 해상데크길 조성구간에 대한 생태계 현장조사에서 해양보호생물 대추귀고둥과 흰발농게, 붉은발말뚝게 등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에 시민대책위는 생태전문가들과 함께 해상데크길 조성구간에서 갯벌저서생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서충현 박사(연안관리기술연구소 종묘육성센터장)는 “공사예정 주변의 조간대 상부는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뚝게 등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해상데크길 조성에 사용되는 609mm의 대형 강관 말뚝 설치 과정에 공사현장 주변의 갯벌 훼손은 물론 어민의 소득 수산물인 철게나 해양환경정화생물 갯지렁이 등 다양한 갯벌저



서동물들이 사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대추귀고둥은 갯잔디가 분포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최소 300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었고, 흰발농게는 해상데크길이 시작하는 조간대 상부의 니

사질의 좁은 공간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후 작성된 자문 의견서에서 ‘한번 훼손된 갯벌은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와 대책을 주문하였

순천=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